

歐美紀行 (1)

崔昌奎

(韓國建築家協會 會長·會員)

一九七二年度 第十一次 U. I. A 國際建築家連盟)定期總會에 參席코져 去九月十日金浦空港을 出發해서 約一個月間 十一個國을 돌아 보고와서 實際로 보고 느끼고 生覺했든 것들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써 온 日記를 再讀하며 記錄해 보았다.

順序는 서울 - 東京 - 안카라지 - 함부르크 - 파리 - 런던 - 코펜하겐 - 암스텔담 - 부랴셀 - 파리 - 아테네 - 로마 - 나폴리 - 카푸리 - 로마 - 뉴-욕 - 워싱턴 - 시애틀 - 호노루루 - 東京 - 서울이 되겠다.

大概 韓國人의 外國旅行이란 特殊한 境遇를 除外하곤 거의 時間과 旅費等 問題로서 그리 너그럽지 못해서 늘 바쁘고 焦燥한 旅行을 하게 마련이고 게다가 그 不利한 條件下에서도 더 많은 收穫을 얻으려고 無理한 旅程을 짜고 해서 차분하게 보고 쓸 수가 없는 것이 常例이다.

특히 建築家들의 境遇은 더욱 그러하다. 우리의 이번 旅行도 그例에서 벗어 날 순 없었다.

外國을 본다는 것은 여러가지 面이 있겠지만 于先 視覺的으로 누구든지 都市이든 農村이든 建物과 自然이 為主가 되고 다음에 内部的인 面을 살피게 되는데 短時日內에 더 많은 것을 보고 올려고 한다면 大部分이 都市 即 建物을 고 古跡이나 名所를 보고 오게 된다. 그러나 建築家로서 外面即 視覺的인 面만 보고 왔다하드래도 官公吏나 實業家나 其他 觀光客들과는 달리 느끼고 生覺하는 바와 보는 곳도 自然히 달라진다.

大概是 떠나기 前에 建築史를 뒤지고 各國의 有名한 建物이나 古跡과 名所或은 그都市의 歷史나 이야기를 工夫해서 거이알고 가지만 막상 現地에 가서 實物에 接해보면 冊이나 寫眞이 좀 誇張이었구나 아니 꿈을 안고 期待를 크게 걸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

이런境遇大概가 겨우 이런 程度야하는 失望도 갖게 되지만 自身이 듣지도 못한 意外의 것을 發見했을때 기쁘고 놀나오고 도라와선 그보다 더 誇張해서 報告나 이야길한다.

過去 外國을 다녀온 많은 人士들의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으나 그러려니하고 憧憬에 차 있었지만 이번 막상 實際로 가보곤 誇張된 이야기或은 거이 얼토당토않은 이야기였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 왜들 그런 誇張과 거짓말을 했을까? 는 到底히 理解할 수가 없었다.



파리 세느강의 가장 오래된 다리 위에서 筆者

그중에서도 가장不快한 것은 外國에 가서 他國人들 보다 왜우린 低姿勢여야만 하는가라는 點이다. 自體의面에서의 劣等한 點은 全혀 찾아볼 수가 없었고 言語面에선 그들이 우리韓國말을 모르는데 우리가 그들의 말을 잘해야한다는 理由도 없다. 國力面에선 格差가 있겠지만 自由旅行者 에겐 그리 支障을 주는 것은 아닌데 왜우리만이 그들의 風習이며 格式을 지키고 따라야한다고 하는지를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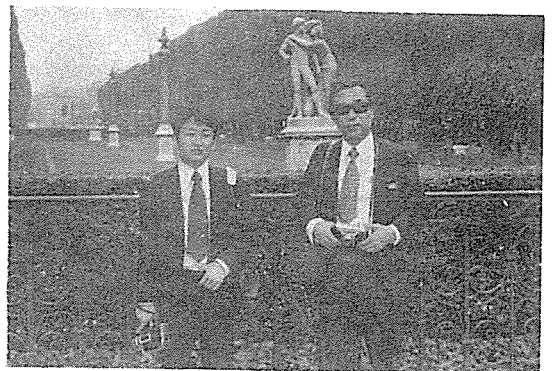
이러한 일들은 外國에 다녀온 사람이 적은 우리들이 지나친 자랑이나 虛勢를 부렸다는 것밖에 안된다. 海外旅行이 그目的과 事情이 다 다르겠지만 그리大端한 일도 아닌데 그렇게 誇張과 거짓과 虛勢를 부렸나 生覺하니 可笑롭기 짝이없는 일이다. 그리 자랑스런 일도 못되는데 韓國인이 外國語를 잘 몰랐다해서 羞恥스런 일도 아니고 必要以上의 格式과“체”를 해야 할 必要도 理由도 없는데 말이다. 勿論 처음보는 外國이니 文物이 다르고 風俗과 人種이 다르니 神奇하고 興奮도 하고 驚異도 있겠지만 韓國인이니간기가 죽고 韓國인이니간 誇張도 虛勢도 체도 부려야한다는 法도 없지않는가 이와같은 點을 느꼈기에 우리들의 이번 旅行은 初半과는 中半서부터 그 姿勢나 態度가 매우 달라졌다. 卽 旅行의 三分之二의 期間中이야말로 眞正한 멋있는 旅行이었다. 본대로 느낀대로 들은대로 生覺하는대로 行動했고 日記를 썼다.

數 많은 곳과 數 많은 外國人과 보고 이야기하곤 했지만 가장 크게 느낀것은 첫째 韓國人에겐 韓國이 第一살기좋은 곳이라는 點이다. 이것은 言語風俗이 또는 飲食이 우리體質에 맞는다는것은 勿論이지만 第一自由롭고 景致가 아름답고 氣候가 좋고 物件값이 세계에서 第一 싸다는 點이 되겠다. 例를들어 커피 한잔값이 우리돈으로 換算하면 百원에서 三百원線이된다. 冷水를 사마시고야 우리 살수없을것이다. 둘째 韓國의 젊은이들을 可能한 限 많이 外國旅行을 시켜야겠다는 點이 되겠다. 이것은 이번 旅行中 數 많은 外國學生(建築科生)들이 簡單한 차림으로 放學이나 休暇를 利用해서 旅行하는 것을 너무도 많이 봤고, 그때마다 우리學生들 生覺이 자꾸만, 떠올랐다. 셋째 外國의 흥내는 必要가 없다는 點인데 우린 우리의 與件과 位置와 分別이있다. 서울은 東京이나 뉴-욕이 아니고

우린 佛蘭西人이나 伊太利人이 아니고 韓國人이기 때문이다. 네째 劣等意識이나 低姿勢로 旅行해선 안되겠다는 點인데 外國도 地球上의 나라이고 月世界는 아니고 그들도 사람이고 우리도 사람이다. 뭐다를 것없는데 그럴必要는 없다고 느꼈다.

各國의 重要都市에 있는 物件은 그나라의 土産品이나 民俗品外엔 거이다가 우리 서울에 있을 뿐더러 그들보다값이 매우 싸다는 것을 알았고 別로 神奇하거나 高級이라는 것도 못느꼈다.

우리가 커피한잔을 五十원으로 마실수 있다는것은 確實히 多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外國의 젊은이들이 宿泊에 七十五센트(美貨)로 홀로 或은 二. 三人式 짝을 지어 거이 無錢旅行式으로 古跡을 調査하고 實測하고 冊과 對照해 보는 眞摯한 態度는 훌륭 했고 그들의 行裝이 襤褸하다해서 “히피”니 비틀즈” 하는따위는 言語道斷이다. 이들은 觀光이 아니고 工夫하는 것이다. 步行으로 自轉車, 空車로 世界를 一周한다. 곳곳에서 道路邊에서 車를 태워달라고 서있는 學生들을 너무 많이보았다.



루블博物館 前面 公園에서

우리學生들에게도 이런 機會를 만들어주는 것이 正治人이나 教育人이나 既成人들의 義務일 것이다. 文教部가 旅券에 韓國時日을 明示한 特殊旅券을이 들을 爲해 마련해야 할 것이다.

各國마다 各都市마다 與件은 다르지만 제나름의 觀光施設이나 其他 高架道路, 無軌道電車 二層버스, 모노레일등 놀라운게 많이 있었으나 그렇다고 우리가 흥내낼 必要는 없다. 그들이 朝飯을 簡略하게 먹는다 해서, 金曜日 午後 부터 辛다고 해서, 무턱대고 따르다는 것은 웃스운 일이 되겠다. 現在 우리 서울엔 그런 點이한 두가지가 아니다. 攄 自覺해야 할 일이라고 느꼈다. 또 身體的(體軀面)으로 볼 때 佛蘭西人이나 伊太利人은 一般의 으로



에펠탑 아래에서 (左)오승석 (右)안광현 (中)筆者

우리보다 큰 體軀 들은 아니고 오히려 女人들은 우리便이 더 크다고 生覺된다. 皮膚도 우리와 같은 것 或은 더 고운것을 많이 보았다. 그러면 體軀面에서나 皮膚色이나 體力面에서 絶對로 뒤지지 않는데 무슨 理由로 劣等意識은 갖는지 모르겠다. 言語面에서 더우기 우리들이 天才便에 屬한다. 言語에 限해선 全般的으로 볼 땐 그들이 더 劣等인 것이다. 오직 劣等を 느낀다면 文明面일 것이다. 그런데 各國에 있는 웬만한 것이나 施設이나 機械類도 거이다. 우리도 갖고 있다. 그들의 風習을 모른다고 웃으물거나 嗤피할 것도 없다. 그들은 우리風習을 더 모르고 있지않는가? 왜이런 일은 우리만이 失手했다느니 嗤피하다느니 할가. 이것 自体가 主体性이 없고 劣等感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라고 生覺되고 우리風俗이나 習慣을 그들앞에 설배 그것을 嗤피나 失手라고 할 수가 果然있을가가 疑心스럽다.

以上은 大體的으로 크게 느낀 点이고 施行은 늘 즐겁고 恍惚하고 解放感과 興奮의 連續이었다.

家族에게서 協會나 事務室일에서 解放된 氣分이고 아직 보지못한 곳곳에 처한 期待에 마냥 즐거웠고 明朗하게 신이나서 남의말을 걸고 대꾸 하고 이름도 모르는 낯선 사람들과 寫眞을 찍곤했다.

특히 有名한 建築物이면 建築史冊과 比較해보고 어루만져도 보았다. 놀랄만한 景致를 갖고 싶은 民俗品들 아름다운 女人들 繼續되어 우리 앞에 나타날 地方과 아직 못본것에 처한 期待! 마냥 즐거워서 어쩔줄 몰랐다. 이름은 있었지만 有名한 建築家가 “建築家は 旅行을 안하면 建築家가 될 수 없다”라는 말은 참말이다. 그것은 建築이란 모든 것을 內包하고 있고 建築만으로서는 建築할 순 없다라는 알송달송한 말의 眞意를 알것만 같았다.

옛부터 男兒出鄉閑하고 閑良은 名山大川을 찾아 拔涉하고 豪然의 氣를 기른다 했거늘 現代에선 旅行이 바로 그것에 該當되는 것이다. 卅先 世界各國의 風物을 實際로 見接함으로 自己의 位置를 設定할 수 있는 것이고 大家의 作品에 接해서 비로소 自己의 程度와 位置를 알게되고 劣等感이 가시고 自信이 생기게 된다. 或은 反對로 驕漫을 뒤우치고 誠實한 謙讓을 갖게 된다고 生覺하면 人生에 있어서 旅行은 없어진 안될 重要한 일이고 旅行은 人生에 利로웠지 害로운 것은 아닌것이겠다.

以上前記한 前提 아래서 實際로 보고 느끼고, 生覺한 것을 誇張없이 虛勢없이 旅程의 順序대로 地方과 都市의 順으로 하루도 빼놓지 않고 써온 日記를 再讀하면서 또는 記憶을 더듬고 回想해서 적어보기로 한다. 거짓없는 事實 그대로 말이다. 九月 十一日 午後 二時 金浦空港을 P. A. C機便으로 出發해서 一時間后인 三時에 東京에 寄港했다. 東京은 歸路에 더 長時間 滯留했지만 아라스카行 機便이 六時間后에 있음으로 市内에 들어가기로 決定하고 LOBBY에 나섰더니 五十代 韓國婦人이 十才가량의 아이를 다리고 “부라질”로 가는데 말도通하지않고 初行이라 어쩔바 몰라서 잇기에 우리時間 機名 등을 알아서 出口番号를 調査해서 내려다주고 여러가지 注意를 해서 타일르고 잘 가라고 人事하고 羽田空港밖으로 나섰다. 우리들의 이번 旅行은 여기서 부터 始作되는구나 換錢手續이며 가라타기며 모—든것이 始作 된다. 東京은 學生때오래 있었기에 제아무리 變貌했다 하더라도 言語도 問題없고 別걱정도 없었지만 稅關職員이 “東京上陸하는 目的은” 하기에 큰 소리로 六時間동안 이 쓸쓸한 곳에 있으란 말이나 라고 流暢? 한 日本語로 말하고 나와버렸더니 아무말도 않고 내보내주었다. 보슬비가 내리고 있다. 多感했던 學生時節의 東京과는 判異한 印象이다. 二十代의 血氣닥치는대로 설치고 다니던 東京이것만 五十이 넘어와보니 感慨 無量하다. 銀座나 모—든 거리가 變했다. 確實히 變했다. 그러나 根本的인 地理는 다름바 없다. 地名도 街名도 그대로다. 밤의 東京거리를 할 일 없이 거닐면서 三十年間의 東京을 조용히 回想해 보았다. 그들의 紀元二千年祭 날밤 銀座에서 日人學生과 言爭하던 生覺이 나서 그땐 젊어섰지라고 중

얼매며 홀로 픽! 웃었다. 茶를 마시고 気分내서 映画(日画)를 보고 곧장 빛속을 TAXI로 空港으로 나왔다.

후덕지근한 羽田 空港을 LUFTHANSA 七二七機로 떠났는데 武器를 調査하느라고 몸을 檢索하는데 너무도 簡單히 한다. 그리곤 親切하게 罪悚합니다라고 人事까지 한다. 그때 時間이 밤九時半이었다.

다음날 아침 七시에 아라스카의 안카라지 空港에 내렸다. 原來 아라스카는 蘇領이었다. 이곳 駐在 蘇聯官 吏가 本國에서 獸皮니 뭐니 긋잡게 구니 쓸모없는 땅이라고 報告를 내고 恤값으로 米國에 팔아버렸다는 것인데 北極에 가깝고 農事는 勿論 잘되지도 않지만 寒帶林의 森林이 育어져 있고 地下資源 特히 金 鈹이 到處에 있다고 한다. 現在 美國으로선 그런 條件보다도 國防上의 要地로서만은 軍事施設이 거의 陰弊되지 않은 채 四方에 있다. 안카라지 空港만해도 機上에서 보면 數 많은 高射砲陣地 米사일, 레이더 裝置가 알 수 있을 程度이다. 너무도 廣範圍함으로 陰弊할 수도 없는 模樣인듯 開放되어 있다. 勿論 空港밖엔 못나갔지만 二時間程度 空港 LOBBY에서 窓밖으로 보아도 建設中에 있는 軍事施設도 많이 보인다. 氣溫이 急降下해서 攝氏八度이란다. 몇 時間前 東京에선 몹씨 더웠고 후덕지근했는데 여긴 싸늘한 淸明한 날씨다. 잠보 七二七機가 北極橫斷의 準備로 機体點檢과 給油로 寄港한 것이다. 免稅區域內 商店엔 日本女人의 販賣員도 있다.



몽마르트 언덕에서의 筆者

에스키모족의 土産物이나 民俗品이며 獸皮나 毛皮製品들을 팔고 있다. 토끼 毛皮에다 아라스카라는 燒印만 찍어서 美貨二弗이란 딱지가 붙어 있다. 白色石英質碎石에서 金粉질을 해서 羊皮주머니에 넣어서 美貨三弗로 팔고 있다. 特異한 것은

에스키모족들의 木刻品들이고 띠(帶)나 衣服의 紋樣에 우리나라의 紋樣과 같은 것이 있다. 이런 紋樣은 後에 알았지만 “히람”이나 로-마”에서도 많이 보았다. 三千年前 時代엔 이런 紋樣이 東西洋에서 다 쓰여진 模樣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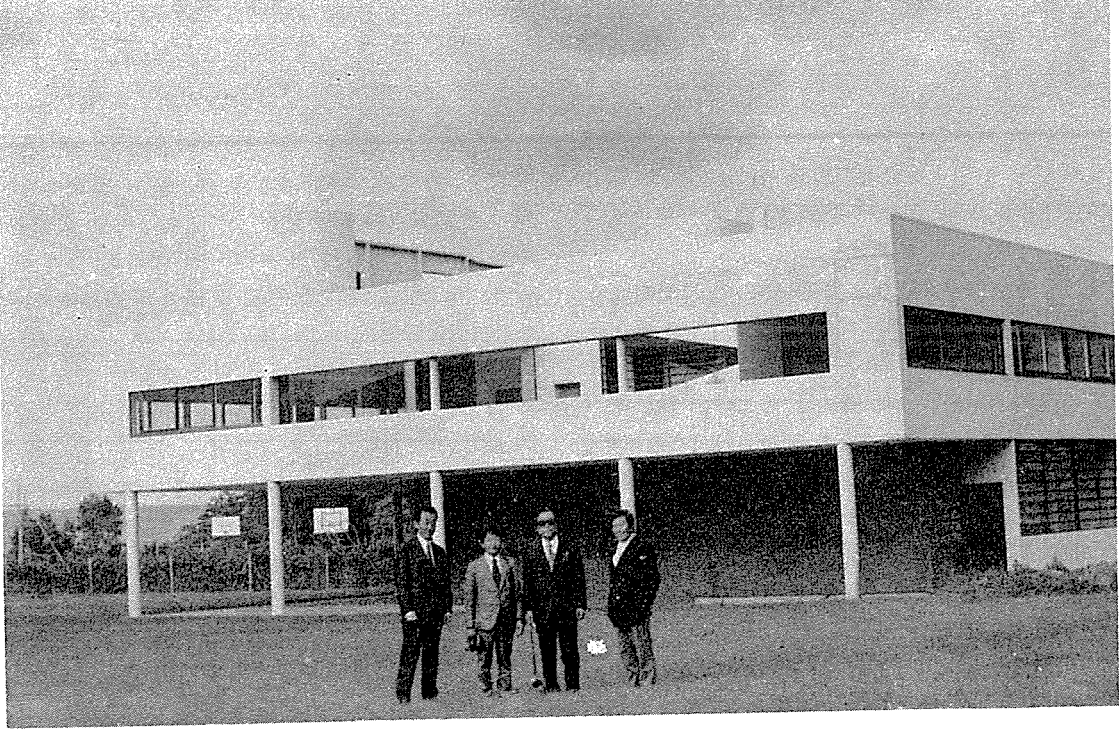
異常한 것은 軍事基地이면서 마구 撮影이 許容되고 있다는 点이다. 이렇게 美國은 開放의 人견지或은 威脅的인 自信인지도 모르겠다. 湿地(즌도라)가 많이 보이고 落葉松같은 樹本이 鬱蒼하다. 적고 큰 湖水가 散在하고 있다. 옛날 氷河時代의 遺物이리라. 안카라지市街地는 空港에서 떨어져 있어 잘 보이지 않는다. 太陽光線이 淸弱한 느낌이 다.

美軍憲兵들이 空港職員의 일을 보고있다는 것으로 보아 一般空港이 아니고 空軍基地이란 것을 알 수가 있다. 何如튼 美國땅을 밟았구나 生覺하니 좀 야릇한 氣分이 든다.

東京서 부터 塔乘하고 온 LUFTHANSA 機의 巨大한 機體가 싸늘한 안카라지 空港을 뜬것은 九月十一日午前 十時이다. 우리는 오늘 九月十一일을 두번 갈게 되는 것이다. 日字變更線을 지나므로해서 地球廻轉과 反對方向으로 날이기 때문에 實際로는 다음날 아침 六時三十分 西燭“함부르크”에 到着했지만 結局 함부르크도 九月十一日 아침인 것이다.

“안카라지”를 出發해서 約二時間程度되어 機內에서 淸眼帶를 하고 잠을 자고 있노라니 擴声器가 “여러분 至今本機는 北極上空을 날고 있습니다. 고 하기에 불야 불야 일어나서 写真機를 들고 窓가로 갔다.

아! 이 무슨 壯觀이랴! 난생 처음으로 水平으로 보이는 무지개가 길게 보인다. 七色이 燦爛한 그 무지개가 約十分間이나 보이더니 온 하늘이 무슨 희미한 光茫에 쌓인 것 같았다. 極光(오-로라) 이란다. 乘客들은 모두 이 壯觀한 光景에 喊聲과 驚嘆聲의 連發이다. 啞然 목에서 말이 나오지 않는다. 偉大한 地球의 壯觀이다. 機體바로 밑을 내려다보니 永劫人跡을 모르는 北極의 山이 보이고 自雪이 뒤덮혀서 永山인줄 알았더니 氷河다. 아! 創世紀의 光景이 이러했으리라. 色彩가 저러했으리라. 銀白色의 깃뿌리들 얼어붙은 안개인지 구름인지 그리고 極光의 神秘스런 光線이 무슨 놀라운 景



파리 郊外에 있는 르,꼬르비제의 初期作品 앞에서 오웅석, 안장원, 강석원 氏와 筆者

致일가 太古原의 그대로이리라.

機上의 多国籍의 乘客들은 오직 이 壯觀앞에선 人類라는 것뿐 民族이나 国籍을 잊은듯 말이 없고 그저 멍 하니 보고만 있다. 創世紀의 人類들大 自然의 壯嚴앞에 한 그대로이다.

飛行機가 날라도 날라도 밤도 아니고 낮도 아닌 이른아침이 繼續된다. 희미한 밝음이다. 아침 六時 三十分 함부르크에 到着했을 때의 밝음이다.

學生 때 “白夜”란 小說을 읽은 것이 記憶난다. 그 때 白夜의 뜻을 잘 理解못했다. 이제 이것이 바로 白夜이로구나! 깨달았다. 白夜도 極光도, 水平무 지개도 氷河도 다— 처음 接하는 것으로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다. 아아 이번 旅行中만은 驚嘆이 있었지만 거이가 人爲的인 것이었고 大 自然의 偉大함을 안것은 가장 印象的이고 永遠히 잊지않을 것이다.

機內 옆자리에 있던 젊은 美國女人이 말을 걸어 온다. 스페인의 愛人을 찾아간다면 上氣된 얼굴로 이야기를 걸어오기에 대꾸했다. 韓國에서 온 建築家라고하니 매우 놀란다. 아까부터 우리 셋 東洋人을 興味롭게 보다가 막상 말을 걸어보니 建築家들이라고하니 異常한 모양이다. 名臧을 꺼내 보였더니 아! 當身會長이냐하고 安心하고 곁에 와서 앉는다. 우리 나라를 除外하곤 建築家라만 다—들 알아주는 모양이다. 이번 旅行中에도 到處에서 空港의 出入國時에도 勿論이지만 旅券의 職業

欄에 建築家라고 쓰인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 一般觀光客이 못보는 곳도 旅券의 建築家 部分을 보여 주면 無事通過이고 空港에서도 敬稱을 붙여 말을 하곤 했다. 그들은 建築家라면 우선 尊敬하고 信任하고 말끝마다 Sir의 敬稱을 붙이니 마음이간 지러웠다.

西獨으로 가는 韓國 아주머니가 初行길이라 몹시 걱정하기에 함부르크까지 같이 가서 푸랑크푸르트로 갈아타는 것이며, 機內에서 푸랑크푸르트로 가는 손님을 찾아서 부탁을 하고 그 아주머니를 소개시키고 같이 가 달라고했다. 언어가 통하지 않고 홀로 旅行하는 그 아주머니가 몹시 딱해 보였기 때문에 同族으로서의 적은 親切이었다.

“함부르크”空港은 昨夜에 비가 온 것인지 滑走路에 물이 고여 있었다. 滯留機들의 機體도 다 젖어있었다. 免稅區域에서 約一時間程度 기다리다가 AIR FRANCE를 갈아타고 巴里로 向하는 것이 다.

СССР 라고 쓴 蘇聯機를 비롯해서 各國의 처음 보는 航空社機들이 많이 보인다. 免稅店에서 美弗로 西獨담배를 사서 피워보았다. 옆에 있던 獨逸人이 웃는다. 담배가 어떠냐기에 나는 韓國 銀河水를 꺼내서 피워보라고 한대 주었다. 고맙다고하며 피운다. 獨逸담배는 確實히 우리담배보다 맛이

못하다. 空港内는 아주 조용하고 사람도 적고 한적한 시골 停車場 같은 느낌이다. 後에 들은 이야기지만 原來 이 空港에선 飛行機 拉致事故가 많아서 손님이 적다는 것이다. 우리도 出国時에 몸 檢査가 嚴했다. 勿論 自己네 獨逸乘客들에게도 한 사람씩 別室속에 들어가서 男女別로 몸 檢査를 받고 나온다. 그 동안 그 손님의 짐은 살살이 뒤지고 있었다. 不愉快하지만 獨逸人의 法에 對한 勤直性이 보인다. 날씨가 若干 차겨워 코-트를 입은 손님이 많다.

窓밖을 내다보니 산은 안보이는데 平地에 나무가 우거져 있다. 이런 光景은 歐羅坡 一帶의 光景이다. 우린 나무는 산에 심는 것인줄 알고 있지만 獨逸은 平野에 造林을 잘하기로 有名하다.

“함브르크”市는 港口인데 空港에선 港口나 바다가 보이지 않는다. 滑走路 멀리에 軍用機가 보이고 執銃한 軍人이 二名式 滑走路의 到處에 動哨가 돌고 있는 것이 보인다. “하이켈링”事故가 자주 있어서인지 軍用空港같은 느낌이다. 알고보니 西獨에선 거이 軍用機의 專用飛行場이 따로 있지 않고 一般과 兼用하는 곳이 많다고 들었다. SHOP의 BAR에서 커피 한잔을 마르크貨로 마셨다 (담배 사고 거스름돈). 따끈하고 맛이 있었다.

七時半 AIR FRANCE機로 巴里를 向해 “함브르크를 떴다. 機上에서 본 西獨의 農村風景은 아름다웠다. 흙이 보이지 않는다. 푸른 牧場과 숲과 運河와 道路, 散在한 農家들 草綠빛一色이다. 農耕地도 잘 整理되어 있다. 到處에 牧場싸이로가 있다. 牧牛의 떼가 얼룩점 같이 보인다. 가끔 이상스런 塔에서 蒸氣도 煙氣도 아닌 하이얀 안개 같은 것을 뿜고 있다. 물어보니 시멘트 工場이란단다. 바로 그것이 高爐 시멘트 工場이었다. 마을마다 平地에 숲이 우거져 있다. 옛날 “히틀러”全盛時代 獨逸各地의 “히틀러유겐트(少年 突擊隊)들이 줄지어서 아름다운 平野를 行進해서 總統의 査閱을 받으러 가는 寫眞을 東京서 學生때 본 記憶이 난다. 確實히 豊饒한 땅 같이 보인다. 獨逸, 和蘭, 벨기에, 佛蘭西 그리고 北으로 瑞典等을 包含한 西歐平原의 一部인 것이다. 이 綠色으로 덮힌 平原이 바로 西歐文化의 中心地인 것이다. 이 平原이 豊饒하게

될 理由가 있다. 研究와 勤勉이다. 그들의 祖上들은 研究했고 勤勉했다. 덴마크나 벨기에는 우리 國土보다도 적다. 그러나 그들은 全國土面積이 即 耕作面積이다. 우린 七割이 山岳이다. 三割밖에 耕作面積이 안된다. 結局 그들의 國土는 實地로 우리보다 큰 셈이 된다. 平原이므로 交通도 便하고 運河도 發展해서 大量輸送이 손쉽게 된다. 우거진 森林은 그나라의 人心과 由緒를 말해 준다. 獨逸人들은 나무를 찍 사랑한다고 들었다.

함브르크를 出發해서 2時間도 못되어서 우리의 第一目的地인 巴里 “오르리”國際空港에 내렸다. 入國手續따윈 아주 없다. 참말로 自由港이다. 날씨는 아주 快晴했다. 氣候도 溫和하다. 明朗한 나라라는 느낌이 든다.

公衆電話 거는 方法이 꼭 까다롭다. 一行中엔 佛語를 아는 사람이 없다. 셋이서 注意文을 읽어가면서 간신히 우리 大使館을 불렀다. 韓領領總務가 곧 마중 나갈테니 空港에서 기다리라는 것이다. 그동안 換錢을 하고 空港內를 두루 求景했다. 果然 大巴里 空港이다. 오가는 사람이 너무도 많다. 規模나 施設이 우리 金浦空港은 比較도 되지 않는다. (계속)

駐韓韓國大使館

